PPI 쇼크 상쇄한 미중 회담 기대, 기술주 랠리 재개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RA 성현영 _ hyseong@ls-sec.co.kr

기술주 강한 투자심리, 물가지표 충격도 제한

- 미 증시는 DOW -0.14%, S&P500 +0.58%, NASDAQ +1.20% 혼조.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+2.6%기술주 하루만에 투심 회복
- 국내시간 기준 14일 오전 11시부터 미중 정상회담 개시. 미국 기업 CEO 다수 동참해 이번 회담에서 중국과 무역 계약 체결 여부에 귀추 주목. 방중인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젠슨황 엔비디아 CEO도 막판에 합류
- 한편, 모건스탠리 S&P500 지수 전망 상향. 연말 목표치 7,800→8,000pt, 12 개월 목표치는 8,300pt 제시. 지정학 위험과 사모대출 위험, AI disruption 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에서 나타난 회복력이 강세 관점 유지 배경

PPI 4년래 최대폭 상승, 다만 워시 인준에 국채금리는 혼조

- 4월 PPI YoY +6.0% MoM +1.4% 전월·컨센 대폭 상회, 상승률 4년래 최대. 근원 PPI YoY +5.2% MoM +1.0% 전월·컨센 상회. 재화 +2.0%, 에너지 가격 상승(휘발유 +15.6% 등) 주 요인. 서비스 +1.2%
- 미 국채금리 방향 혼조 10Y 4.465%(+0.2bp) 2Y 3.977%(-1.9bp). 금일 케빈 워시 차기 연준의장 후보 인준안 상원 통과로 15일부 임기가 종료되는 파월 의장 후임직 취임 예정
- 한편, 글로벌 중앙은행 기조는 매파적. ECB 이코노미스트 70인 중 59명은 6월 회의에서 25bp 인상 전망. 4월 이후 중동전쟁 장기화 및 유가 상승이 주요물가에 미칠 영향 고려

미중 회담 관망에 국제유가 하락, IEA·OPEC의 경고

- 중동 휴전 상황은 여전히 불안한 한편, 시장의 이목은 미중 회담으로 집중.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요국인 중국과의 회담 내용 관망하며 국제유가 하락 WTI $100.9(-1.3%) Brent $105.7(-1.9%)
- IEA는 전쟁 영향으로 지난 두달간 대규모 석유 재고 감소를 언급, 공급 차질의 심각성을 경고. OPEC은 올해 세계 석유수요 성장 전망치 138만 bpd→117만 bpd 하향 조정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NVDA	엔비디아	+2.3%	젠슨황 CEO 방중사절단 후발대 참가 소식에 주가 강세.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젠슨 황, 일론 머스크, 팀 쿡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힘. 마이크론, 퀄컴 등 CEO도 동행
ARM	ARM	+6.4%	ARM과 소프트뱅크, AI 칩 제조사 '세레브라스 시스템즈' 상장 직전 막판 인수 시도 실패. 세레브라스 시스템즈는 대형 IPO를 앞둔 상황(CBRS 상장 예정)
F	포드	+13.2%	신설 자회사 '포드 에너지'를 통한 ESS 시장 진출 소식에 주가 급등. 2020년 3월 이후 최대 일일 상승폭 기록. 전력 유틸리티, 데이터센터 등을 대상으로 배터리 저장 시스템 공급 계획. 모건스탠리는 향후 몇 달 내에 포드가 대형 상업용 고객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 "상당히 높다" 분석. 특히 CATL로부터 기술 라이선스를 받기로 한 계약이 핵심 강점이라 언급
BABA	알리바바	+8.2%	실적발표. AI 및 클라우드 사업부문의 가파른 성장세에 주가 강세. 전체 매출 +3%YoY (매각 사업 부문 제외시 +11%), 클라우드 부문 매출 +38%YoY 증가. 다만 AI 플랫폼 '통의천문(Qwen)' 투자 확대 및 커머스 보조금 증가로 EBITA 및 EPS는 전년대비 급감. CEO는 AI 투자의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 진입을 시사, 장기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 피력
CSCO	시스코 시스템즈	+2.6%	장 마감후 실적발표. 시간외 +17%대 상승중. 어닝서프라이즈 발표 및 컨센 상회하는 가이던스 발표에 주가 급등. 회계연도 기준 연간 AI 및 하이퍼스케일러 주문 예상치를 $5B→$9B로 상향. 한편 이번 분기 전체 직원의 5% 미만인 약 4,000명 규모 인력 감축 계획 발표, 절감된 비용을 AI 등 성장성 높은 분야 재투자 계획